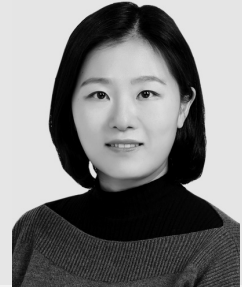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시사점



The Social Service Need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이한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를 청년층(20~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다인 가구와 비교해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인 가구는 동일 세대가 가구주인 다인 가구에 비해 신체,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고 가족 갈등이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노년 가구로 갈수록 커졌다. 사회서비스 수요는 세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향후 이용 의사가 높았다. 청년 가구는 가구 집단에 따라 수요 차이가 큰 반면, 노년 가구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가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1. 들어가며

1인 가구의 급증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이다. 유럽의 경우 1인 가구가 유럽연합(EU) 전체 가구의 32.5%를 차지하며 스웨덴·덴마크·리투아니아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독일·핀란드·오스트리아·네덜란드·프랑스 등은 전체 가구의 40~45%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urostat, 2017). 캐나다(27.6%)와 미국(26.7%), 호주(23.9%), 일본(34.5%) 등 유럽 외의 국가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OECD, 2016).

한국의 1인 가구는 2000년 일반 가구의 15.5%에서 2015년 27.2%로 급증하여 주된 가구 유형이 되었으며,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전체의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미

리, 2019, pp. 78-79).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통계청(2019)은 2047년에는 1인 가구가 일반 가구의 37.3%를 차지하여 부부 가구(21.5%)와 부부+자녀 가구(16.3%)를 큰 폭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과 만혼 증가, 자녀 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증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이혼·별거 등의 가족 해체와 비자발적 독신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 가구 증가 등 복합적 사회 변화에 기인한다(변미리, 2015, p. 3). 실질적인 생활의 단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인 가구도 다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 제도는 대체로 2인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특히 부부+자녀라는 가구 형태를 전제로 설계되어 왔다(김은정, 2018, pp. 43-44).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인 가구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욕구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김은정, 2018; 김윤영, 2018; 홍승아, 성민

정, 최진희, 김진욱, 김수진, 2018; 노혜진, 2018; 이여봉, 2017; 강은나, 이민홍, 2016; 김연옥, 2016)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 특성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기초 자료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설계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1인 가구의 수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9년에 실시한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수요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1인 가구를 가구주 연령별로 구분하고 2인 이상의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세대별로 구분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1인 가구의 일반 현황

### 가. 세대별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체 가구의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을 청년층(20~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

표 1. 가구주 세대별 1인 가구 비율

(단위: %)

	청년(20~39세)	중장년(40~64세)	노년(65세 이상)	전체
1인 가구 비율	23.27	9.13	39.74	21.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으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보면, 청년층이 가구주인 가구(이하 청년 가구)의 23.27%, 중장년층이 가구주인 가구(이하 중장년 가구)의 9.13%, 노년층이 가구주인 가구(이하 노년 가구)의 39.74%가 1인 가구였다(표 1).

전체 1인 가구에서 각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노년층(63.9%)>중장년층(22.1%)>청년층(14.0%) 순으로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을 노년 가구

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가구의 경우 전체 중장년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타 세대 가구에 비해 낮으나(표 1), 1인 가구 중 중장년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청년 가구보다 높았다. 반면, 2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다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 세대는 중장년층(60.6%)>노년층(26.7%)>청년층(12.7%) 순으로 중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표 2).

**표 2. 가구원 수별 가구주 세대 비율**

(단위: %)

	청년	중장년	노년	계
1인 가구	14.0	22.11	63.89	100
다인 가구	12.72	60.59	26.69	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나. 세대별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으로 조사 응답 가구를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하여 세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단, 다인 가구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 경제활동과 같은 변수는 가구주의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1인 가구와의 비교가 각 가구에 속한 해당 세대의 특성을 병렬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가구주 성별의 경우, 청년층과 중장년층 1인 가구에서는 여성이 과반을 차지하였으나(각각 58.68%, 58.64%), 다인 가구에서는 남성 가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각각 88.22%,

90.21%). 노년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 가구주는 청년 및 중장년 가구와 마찬가지로 남성(89.01%)이 절대다수였으나, 1인 가구 가구주는 여성(85.69%)이 대부분인 차이를 보였다.

교육 수준은 청년층에서는 1인 가구(85.12%), 다인 가구(88.97%) 모두 대졸 이상이 가장 많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장년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다인 가구 모두 고졸(각각 62.30%, 49.84%)>대졸(각각 19.37%, 46.42%) 순으로 나타났으나, 다인 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대졸자 비율이 높고 고졸자 비율은 낮았다. 중졸과 초졸 이하 비율은 1인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노년 가구에서는 이 차이가 더 심화되어 1인 가

표 3. 세대별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청년		중장년		노년		전체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성별								
남성	41.32	88.22	41.36	90.21	14.31	89.01	24.07	89.64
여성	58.68	11.78	58.64	9.79	85.69	10.99	75.93	10.36
교육 수준								
초졸 이하	0	0	4.71	0.68	73.55	35.36	48.03	9.85
중졸	1.65	0.50	13.61	3.05	16.67	26.28	13.89	8.93
고졸	13.22	10.53	62.30	49.84	8.70	32.26	21.18	40.15
대졸	85.12	88.97	19.37	46.42	1.09	6.09	16.90	41.07
거주 지역								
대도시	57.85	56.89	44.50	52.16	26.45	37.16	34.84	48.76
중소도시	38.02	30.33	37.17	34.79	32.07	31.54	34.03	33.35
읍면부	4.13	12.78	18.32	13.05	41.19	31.30	31.13	17.89
기초보장 수급 여부								
수급	0	0.75	8.38	0.74	13.41	2.03	10.42	1.0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구와 다인 가구 모두 초졸 이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다인 가구의 경우 초졸 이하(35.36%), 중졸(26.28%), 고졸(32.26%)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1인 가구는 초졸 이하가 압도적으로 높고(73.55%), 고졸(8.70%)은 다인 가구에 비해 현격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거주 지역은 노년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세대, 가구 집단에서 대도시 거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년 1인 가구는 읍면부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41.19%), 노년 다인 가구는 타 세대에 비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

우 1인 가구의 읍면부 분포 비율이 매우 낮았다(4.13%).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청년 가구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았으나 중장년, 노년 가구로 갈수록 1인 가구의 높은 수급 비율이 두드러져(각각 8.38%, 13.41%)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3).

경제활동 상태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년 1인 가구는 대부분이 상용근로자(71.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10.74%)이 뒤를 이었다. 이는 청년 다인 가구에서 학업이 0.25%에 불과한 결과와 대조된다. 고용주/자영업자는 1

인 가구(7.4%)와 다인 가구(6.02%)에서 모두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중장년층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는 고용주/자영업자(34.55%)-상용근로자(28.27%)-임시·일용근로자(17.80%) 순으로 나타났는데 다인 가구는 상용근로자(57.84%)-고용주/자영업자(30.63%)-임시·일용근로자(5.05%) 순으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은 낮고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무직의 비

율도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훨씬 높아, 1인 가구의 고용이 다인 가구에 비해 불안정함을 보여 주었다. 노년층의 경우 1인 가구, 다인 가구 모두 무직(각각 36.78%, 50.90%)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1인 가구에서는 차순위를 주부(38.22%)가 차지한 반면, 다인 가구에서는 고용주/자영업자(27.48%)의 비율이 차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인 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4).

표 4. 세대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청년		중장년		노년		전체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상용 근로자	71.90	88.22	28.27	57.84	0.36	5.02	16.55	47.61
임시·일용근로자	7.44	2.01	17.80	5.05	13.95	9.08	13.89	5.74
고용주/자영업자	7.44	6.02	34.55	30.63	9.42	27.48	14.70	26.66
무급가족종사자	0	0	0	0.16	0.18	0.84	0.12	0.32
일시 휴직 및 구직활동	0.83	0.50	2.09	0.37	0.54	0.24	0.93	0.35
주부	0	3.01	5.24	2.84	38.22	6.33	25.58	3.79
학업	10.74	0.25	0	0	0.54	0.12	1.85	0.06
무직/퇴직	1.65	0	12.04	3.11	36.78	50.90	26.39	15.4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 3. 1인 가구의 건강 및 사회적 관계

1인 가구의 잠재적 사회서비스 수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신체 및 정신건강, 가족 갈등 요인,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정도를 살펴보았다.

#### 가. 신체 및 정신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는 '가구원 모두의 전반적 신체·정신건강 상태'를 질문한 것이므로, 다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건강이 기준이 아니며, 1인 또는 다인 가구에 속한 동일 세대 가구원의 건강에 대한 비교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신체건강을 살펴보면, 청년 가구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매우 건강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음’과 ‘대체로 건강하며, 건강 증진 활동을 함’이 전체의 97% 이상으로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가구에서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매우 건강’과 ‘대체로 건강하며, 건강 증진 활동을 함’의 비율이 낮고 ‘일부 돌봄 필요’와 ‘대부분 건강에 문제가 있음’의 비율이 높아,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신체건강 수준이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노년 가구 또한 중장년 가구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가구 집단 간 차이가 중장년 가구에 비해 더 컸다(표 5).

정신건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가구가 ‘대체로 건강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구원이 음주 문제, 인터넷 또는 게임 중독, 불안장애와 정신질환을 가진 비율은 전 세대에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이 다인 가구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년 가구, 중장년 가구의 음주 문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다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가진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응답자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아닌 가구원의 문제를 솔직하게

표 5. 세대별, 가구원 수별 신체건강 상태

(단위: %)

구분	매우 건강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음.		대체로 건강하며, 문제는 없으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일부 가구 구성원에게 의료적 치료 또는 별도의 돌봄이 필요함.		가구원 대부분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음.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청년	61.16	66.67	37.19	31.08	1.65	2.01	0	0.25
중장년	54.45	56.58	32.46	36.16	10.99	7.00	2.09	0.26
노년	34.96	37.16	35.33	43.61	23.19	17.20	6.52	2.0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6. 세대별, 가구원 수별 정신건강 상태

(단위: 명/%)

구분	매우 또는 대체로 건강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음.		가구원 중 일부는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음주 관련 문제가 있음.		가구원 중 일부는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 우려됨.		가구원 중 일부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질환을 진단받아 약물 치료 중임.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청년	89.26	96.24	6.61	2.51	4.13	1.25	0	0
중장년	84.29	93.00	9.95	3.95	3.66	2.79	2.09	0.26
노년	85.51	90.92	5.80	5.14	5.07	2.39	3.62	1.5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7. 세대별, 가구원 수별 가족 갈등 요인

세대	구분	N	정신건강	신체건강	부모·자녀	형제자매	부부 관계	친지·이웃	경제적 어려움
청년	1인	121	1.28	1.29	1.34	1.36	1.29	1.33	1.32
	다인	399	1.19	1.25	1.33	1.29	1.36	1.28	1.24
	t-value		1.57	.7241	.1918	1.0637	-.8838	.8034	1.1653
중장년	1인	191	1.54	1.82	1.52	1.53	1.45	1.53	1.51
	다인	1900	1.28	1.43	1.43	1.40	1.45	1.38	1.35
	t-value		4.9589***	6.2538***	1.666	2.3371*	-.0687	2.9117**	3.0543**
노년	1인	552	1.56	2.04	1.58	1.51	1.53	1.59	1.61
	다인	837	1.38	1.85	1.45	1.39	1.43	1.42	1.46
	t-value		3.7368***	3.1364**	2.871**	2.6749**	1.9655*	3.7460***	3.1033**

\* p&lt;.05 \*\* p&lt;.01 \*\*\*p&lt;.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응답하기를 꺼렸을 가능성도 있다(표 6).

#### 나. 가족 갈등

가족 갈등은 '지난 1년간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을 조사한 것으로, 1인 가구인 경우 가까운 가족원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값은 '1=전혀 심각하지 않았다'부터 '5=매우 심각했다'까지 서열 척도로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2 미만으로 가족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세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년 가구는 1인 가구의 가족 갈등이 다인 가구의 가족 갈등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반면, 중장년 가구와 노년 가구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가족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 가구로 갈수록 갈

등 정도가 심각해지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 요인별로는 중장년, 노년 가구를 중심으로 신체건강으로 인한 가족 갈등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타 세대에 비해 가족 갈등 수준이 낮은 편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갈등 요인보다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표 7).

#### 다. 사회적 지지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지난 1년간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해 가구 구성원 외 가족, 친인척, 친구가 도움이 된 정도를 물어 '1=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부터 '5=전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까지 서열 척도로 응답값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해당 영역에서의 도움이 필요치 않았던 경우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지지 정도는 세대에 따라 차이를

표 8. 세대별, 가구원 수별 사회적 지지

세대	구분	생활비, 용돈, 의료비 등 경제적 도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논, 위로, 지지 등 정서적 도움		가사·간병 등 일상생활 도움		소개 등 정보 제공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청년	1인	55	3.72	60	3.91	50	3.86	59	3.79
	다인	193	3.34	241	3.78	189	3.68	209	3.54
	t-value	2.2801*		.8799		1.3205		1.6759	
중장년	1인	110	3.05	113	3.23	98	3.15	99	3.21
	다인	821	3.24	1029	3.59	789	3.32	927	3.48
	t-value	-.5708		-3.2404**		-1.3095		-2.2304*	
노년	1인	416	3.53	400	3.44	333	3.49	211	3.29
	다인	546	3.37	538	3.43	439	3.29	435	3.30
	t-value	2.2952*		.1746		2.2867*		-.1281	

\* p<.05 \*\* p<.01 \*\*\*p<.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보였다. 청년 가구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다른 영역의 도움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중장년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정서적 도움이나 정보 제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노년 가구는 정서적 도움이나 정보 제공에서는 집단 간 도움 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경제적 도움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은 1

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 4.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욕구,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

영역별 사회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1년간 해당 서비스

표 9. 사회서비스 분류 및 세부 사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사업
성인 돌봄	노인 돌봄	양로 및 요양시설 이용, 재가서비스 이용, 주간보호·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복지용품·보장구 지급,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등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 서비스, 주간보호·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복지용품·보장구 지급 등
	일상생활 지원	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 식사 제공 서비스(경로식당,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 가사 지원 서비스 이용, 차량 지원(이동 지원) 등
아동 돌봄	출산 지원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임신·출산 바우처, 임신부 철분제 지원 등), 임신부·신생아 영양 관리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산후조리원 혹은 산후조리사 이용), 산모·신생아 바우처, 모유 수유 지원 서비스 등
	보육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 놀이학교 이용 등 사설 보육서비스는 제외
	방과 후 돌봄	방과 후 돌봄(초등학교) 이용,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수련관 이용 등 ※ 학원, 공부방 등 사교육 서비스는 제외
	기타 아동 돌봄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입양 서비스, 가정위탁 서비스, 아동·청소년 쉼터 및 그룹홈 이용 등



대분류	중분류	세부 사업
건강	신체건강	건강관리 서비스(당뇨 및 고혈압 관리 서비스), 건강검진 이용, 예방접종 이용, 금연·금주 프로그램 이용, 건강 증진 서비스, 생활체육 서비스, 스포츠클럽 이용, 스포츠 바우처 등 ※ 병원 이용 등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는 제외 ※ 스포츠클럽, 헬스클럽 이용 등 취미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제외
	정신건강	각종 상담 서비스(부부 상담, 사례 관리, 가족 상담 등),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관리, 인터넷·게임 중독 관리, 우울 및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아동·노인 학대, 성·가족·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 ※ 신경정신과 진료 등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는 제외
	재활	작업치료, 수중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 각종 재활서비스
교육	교육 지원/평생교육	취약계층 자유수강권, 공공 공부방, 평생교육원·주민센터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부모교육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 등 ※ 학원, 공부방 등 사교육 서비스는 제외
	정보 제공	재무 설계·노후 설계 지원 서비스, 세무·법률 지원 서비스 등
고용 및 취업	취창업 지원	직업소개소 이용, 고용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 창업 지원, 직업 상담 및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 취약계층(자활) 일자리 사업 등
사회 참여	사회참여 지원	자원봉사, 지역위원회 등 주민 참여, 마을사업 참여 등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	문화 바우처, 여행 바우처, 이동 영화관, 취약계층 예술 지원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악기 지원 서비스 등 ※ 영화, 공연 관람 등 취미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제외
주거 및 환경	주거 및 환경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임대료 지원, 임대주택 제공 서비스, 취약계층 하절기·동절기 쉼터 제공,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에너지 효율 개선 서비스, 다자녀 및 취약계층 전기세 감면, 에너지 바우처 등 노후 경우 차량 저감 장치 지원 서비스, 라돈 측정기 대여, 미세먼지 대비 서비스(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지급 등) 등

자료: 박세경, 이정은, 이주민, 함영진, 김유휘, 안수란, ...이재윤.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50.

가 필요했는지, 이용한 적이 있는지, 향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각 서비스의 세부 사업은 아래 <표 9>와 같다.

### 가. 청년 가구의 사회서비스 욕구,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

청년 가구는 전반적으로 타 세대에 비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수준이 낮았다. 이용 욕구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모두에서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는데, 이용 경험과 향후 이용 의향 또한 가장 높았다. 차순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인 가구에서는 고용 및 취업(18.18%)이 차순위, 문화 및 여가와 일자리 지원이 동률(8.26%)로 3순위를

차지하였다. 이 중 고용 및 취업(11.57%)과 문화·여가(3.31%) 서비스는 이용 경험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일자리 지원은 이용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0.83%). 향후 이용 의향은 교육 지원/평생교육(14.05%)과 문화·여가(13.22%) 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지원(11.57%)과 취·창업 지원(9.92%) 이용 의향도 비교적 높았다.

다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1인 가구보다 서비스 욕구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영유아 또는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수요가 반영되어 아동 돌봄의 욕구가 높았으며, 이용 경험과 향후 이용 의향 역시 이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

표 10. 청년 가구의 사회서비스 욕구,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대분류	중분류	1인 가구			다인 가구		
		욕구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욕구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성인 돌봄	노인 돌봄	0.83	0	0.83	1	0.25	1
	장애인 돌봄	0.83	0	0	0.25	0	0
	일상생활 지원	0	0	0	1	0.25	1
아동 돌봄	출산 지원	1.65	0.83	2.48	19.3	17.79	23.06
	보육	0	0	0.83	52.38	48.87	59.15
	방과 후 돌봄	0	0	0.83	15.04	11.03	21.8
	기타 아동 돌봄	0	0	0.83	5.51	1.5	10.78
건강	신체건강	35.54	28.1	44.63	59.65	52.88	64.66
	정신건강	0.83	0.83	0	1.5	0.25	3.01
	재활	0	0	0.83	0.5	0.25	1.25
교육	교육 지원/평생교육	1.65	1.65	14.05	10.03	4.76	22.06
	정보 제공	0.83	0.83	4.96	3.51	1.25	6.02
고용 및 취업	취창업 지원	18.18	11.57	9.92	6.77	2.76	9.02
	일자리 지원	8.26	0.83	11.57	6.52	1.5	10.03
사회참여	사회참여 지원	3.31	1.65	7.44	3.51	1.25	6.02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	8.26	3.31	13.22	9.52	2.26	13.28
주거 및 환경	주거 및 환경	4.96	0.83	8.26	8.27	3.76	9.77

주: 각 3순위까지 음영 처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육(22.06%), 문화·여가(13.28%) 서비스의 이용 의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10).

### 나. 중장년 가구의 사회서비스 욕구,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

중장년 가구는 전반적으로 청년 가구보다 서비스 욕구 수준은 높았으나, 이용 경험은 신체건강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이용 욕구,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모두 신체건강 서비스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1인 가구의 욕구는 주거 및 환경(16.23%), 문화 및 여가 서비스(12.04%)에서 높게 나타났고, 이용 경험 역시 해당 서비스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각각 3.66%, 2.62%), 욕구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이용 의향도 해당 서비스에서 높았다.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10.99%)와 이용 의향(15.71%)도 비교적 높았다.

반면 다인 가구는 욕구와 향후 이용 의향은 교육 지원/평생교육(각각 11.53%, 21.05%)과 문화·여가(각각 10.21%, 18.11%)에서 높게 나타

표 11. 중장년 가구의 사회서비스 욕구,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대분류	중분류	1인 가구			다인 가구		
		욕구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욕구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성인 돌봄	노인 돌봄	6.28	1.57	7.33	5.32	2.26	9.26
	장애인 돌봄	4.71	1.05	3.14	1.63	0.47	1.58
	일상생활 지원	5.76	1.57	5.76	3.05	1.11	3.63
아동 돌봄	출산 지원	1.57	0	0.52	1.89	0.79	1.11
	보육	1.05	0	1.05	8.0	6.79	7.42
	방과 후 돌봄	1.05	0	0.52	9.11	6.53	9.58
	기타 아동 돌봄	1.05	0	0.52	1.68	0.37	2.26
건강	신체건강	68.06	59.69	76.96	73.11	67.58	76.68
	정신건강	4.19	2.09	5.76	2.63	0.47	4.58
	재활	4.19	1.05	3.14	3	1.32	4.11
교육	교육 지원/평생교육	3.14	2.09	7.85	11.53	7.11	21.05
	정보 제공	1.57	1.05	1.05	3.84	1.32	6.16
고용 및 취업	취창업 지원	6.81	2.09	5.76	6.63	2.84	9.37
	일자리 지원	10.99	2.62	15.71	7.68	2.58	12.16
사회참여	사회참여 지원	6.28	1.05	8.38	6.79	4.05	12.05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	12.04	2.62	17.8	10.21	2.58	18.11
주거 및 환경	주거 및 환경	16.23	3.66	16.75	7.26	2.63	11.63

주: 각 3순위까지 음영 처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났으나, 이용 경험은 평생교육(7.11%)과 보육(6.79%)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일자리 지원(12.16%), 사회참여(12.05%), 주거 및 환경(11.63%) 서비스의 향후 이용 의향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 11).

#### 다. 노년 가구의 사회서비스 욕구,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

노년 가구는 청년 가구, 중장년 가구에 비해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먼저, 청년·중장년

가구와 동일하게 신체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이 모두 가장 높았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욕구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높았으나 욕구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이 높게 나온 항목은 유사하여 신체건강 서비스와 함께 노인 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자리 지원 서비스, 문화 및 여가 서비스와 주거 환경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성인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지원, 주거 환경 서비스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

표 12. 노년 가구의 사회서비스 욕구,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대분류	중분류	1인 가구			다인 가구		
		욕구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욕구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성인 돌봄	노인 돌봄	33.88	14.49	43.3	20.43	4.9	29.27
	장애인 돌봄	6.7	0.91	3.44	6.21	0.84	4.9
	일상생활 지원	27.17	13.41	33.15	15.53	5.97	19.35
아동 돌봄	출산 지원	3.99	0	0.54	3.46	0.48	0.6
	보육	3.8	0	0.54	3.7	0.72	1.19
	방과 후 돌봄	3.99	0	0.54	3.82	1.08	1.08
	기타 아동 돌봄	3.99	0	0.72	2.63	0.12	0.48
건강	신체건강	85.33	78.8	85.87	87.22	81.24	88.41
	정신건강	7.61	1.63	9.06	5.38	0.84	5.85
	재활	9.42	2.17	11.05	8.6	2.75	9.08
교육	교육 지원/평생교육	9.24	4.35	8.51	10.75	6.81	13.5
	정보 제공	4.71	0.36	3.26	4.54	0.48	3.46
고용 및 취업	취창업 지원	4.89	0.36	2.54	5.97	1.43	4.42
	일자리 지원	27.72	18.3	26.63	24.13	12.9	27.48
사회참여	사회참여 지원	7.43	1.45	7.43	8.6	2.99	10.39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	13.59	4.71	21.01	12.43	3.46	21.15
주거 및 환경	주거 및 환경	30.25	18.12	32.25	17.44	7.77	21.74

주: 각 3순위까지 음영 처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에 비해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2).

종합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세대를 막론하고 신체건강 서비스 수요가 제일 많았으며, 욕구 대비 충족률 또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 욕구 차이는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격차가 두드러지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유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청년 1인 가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현재 욕구나 이용 경험이 가장 적은 집단이나, 향후 이용 의향은 현재 욕구에 비

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은 노년 가구와 청년 다인 가구에서 비교적 높았으나, 세대나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욕구 미충족 요인(서비스 제공량 부족, 이용자의 재정 및 시간 부족, 정보 부족,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 등)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향후 서비스 확대를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5. 나가며

이 글의 주된 목적은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 특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수요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1인 가구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다인 가구와 비교함으로써 1인 가구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인 가구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중장년, 노년으로 갈수록 다인 가구에 비해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상태가 열악하고 고용 상황도 불안정한 편이었다. 신체건강, 정신건강 수준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으며, 중장년이나 노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가족 갈등이 심각했다. 사회적 지지 수준은 가구주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데, 청년층은 경제적 도움, 노년층은 경제적 도움과 일상생활 도움에 대한 지지 수준이 다인 가구에 비해 높았으나 중장년층은 정서적 도움, 정보 제공에 대한 지지 수준이 다인 가구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에서는 세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신체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 비율이 가장 높아 신체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 주었다. 청년 1인 가구는 타 집단에 비해 사회서비스 욕구, 이용 경험 비율이 매우 낮았으나 고용 및 취업과 문화·여가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였다. 중장년 1인 가구는 문화·여가와 주거 환경 서비스에서, 노년 1인 가구는 돌봄

과 고용 및 취업, 문화 및 여가, 주거 및 환경 등 여러 영역에서 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에 대한 건강 지원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의 신체·정신건강 수준은 노년 가구로 갈수록 취약하였으며, 신체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향후 이용 의향은 세대를 불문하고 높게 나타났다. 신체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타 서비스에 비해 높은 편이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 경우 서비스 욕구 수준은 낮으나 1인 가구의 열악함이 두드러져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증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심화 연구와 이를 기초로 한 지원을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장년 1인 가구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으면서 가족, 사회적 관계는 안정되지 않은 편이다.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적 차원에서도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독거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편이어서 이들의 특성과 욕구를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강은나, 이민홍, 2016, p. 55). 이들은 주거 및 환경, 문화 및 여가, 고용 및 취업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회서비스 욕구를 특성과 함께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년 1인 가구는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사회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 노년층은 사회경제적 측면, 건강, 가족 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은 타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나 욕구에 비해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은 충분치 않았다. 특히 욕구가 높게 나타난 돌봄, 건강, 일자리, 주거 영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 1인 가구는 타 세대에 비해 사회적 취약성이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게 나타났으나, 청년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재 당면 욕구인 고용 및 취업을 지원하면서 타 영역의 수요도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친 욕구 미충족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다인 가구는 가구주의 세대보다는 가족 발달 단계(신혼기, 자녀 양육기, 자녀 독립기, 부부 노년기 등)나 가구원 구성(부부, 부부+자녀, 형제자매, 비인척 가구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구분일 수 있으나, 이 같은 분류가 어려운 조사의 특성과 1인 가구와의 비교를 위해 이와 같은 접근을 취한 것은 이 글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교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 속한 동일 세대 개인을 비교하는 결과로 해석하기 어려움을 다시금 밝힌다. ㉠

## 참고문헌

-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 47-56.
- 김연옥. (2016). 1인 가구 시대의 도래: 특성과 생활실태. 한국가족복지학, 52, 139-166.
- 김윤영. (2018). 1인가구 특성과 사회복지정책: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4(3), 1-30.
- 김은정. (2018). 1인가구의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4(2), 41-79.
- 노혜진. (2018).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 박세경, 이정은, 이주민, 함영진, 김유휘, 안수란, ...이재운.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미리. (2015).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 연구. 서울특별시 의회.
- 변미리. (2019). 1인가구의 삶의 질. 한국의 사회동향 2019, 통계청 통계개발원. 78-88.
- 이여봉. (2017).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2, 64-77.
- 통계청. (2019). 장래인구 및 가구 추계. 장래가구추계: 2017~2047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754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754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20. 9. 5. 인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조사.

- 홍승아, 성민정, 최진희, 김진욱, 김수진. (2018).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Eurostat. (2017). People in the EU-statistics on household and family structures. Statistics Explained.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pdfscache/41897.pdf>에서 2020. 9. 5. 인출.
- OECD. (2016). OECD Family Database. SF1.1 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 <http://www.oecd.org/coronavirus/en/>에서 2020. 9. 5. 인출.